

제 2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수상 작품

✦ 백범상 류예주(북가주/빛의 나라 한국학교/8학년)

-마음 좋은 사람 백범 김구



김창암, 김창수, 김구, 백범 김구.... 이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다 설명합니다. 이름이란 것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백범 김구에게는 이름이 네 개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네 이름들이 백범 김구의 인생의 네 단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노력과 인내의 좋은 결과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김구의 생활에서는 행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백범 김구의 삶에서는 많은 죽음을 겪고 실망도 많았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아름다운 나라의 작은 희망이 격려해주며, 김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김구는 무척 파란만장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삶의 네 단계를 설명해주시요.

김창암..., 이 이름은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창암이라는 이름은 큰 바위와 뜻이 같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희망은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창암의 집안은 원래 양반 집안이었지만 조상 중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어 거지 꼴이 되었고 숨어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창암은 큰 바위의 이름으로 살 기회도 없었고 처음부터 훌륭한 봉사 활동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느날 관상을 공부하다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창암의 관상은 좋기는 커녕 인간으로 살아가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서책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 구절은 창암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얼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마음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데 온 힘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름도 김창수로 바꾸었습니다.

김창수..., 이 이름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단계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많은 모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동학을 만나게 됩니다. 동학에서는 배신자로 인해 첫 죽음을 보았습니다. 동학은 결국 실패하였고 숨어다니다가 고능선이란 스승을 만났습니다. 고능선은 창수에게 중국으로 가라는 충고와 함께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이 즈음에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고능선의 말씀을 따라, 김창수는 일본군 장교를 죽이게 됩니다. 부모님은 김창수에게 숨으라고 하였지만, 김창수는 백성들이 나라의 혼란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는 체포되었고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탈옥하게 되면서 김창수라는 이름을 김구로 바꾸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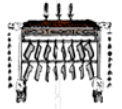
김구..., 이 이름은 김구 선생님이 일본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쫓기면서 사용하게 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와, 결혼하고 싶은 여인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김구는 이러한 고통의 이후, 자신을 매일 깨우는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때 안중근 의사의 나라를 위한 죽음이 있었고 일본이 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김구는 실망스러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백범'이라는 호를 붙이게 됩니다.

백범 김구..., 이 이름은 자신을 깨워 낮은 곳을 찾아가겠다는 이유로 창조한 이름입니다. 백범은 하얀 호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백범은 백정의 '백'과 범부의 '범'자를 합쳐 만든 호입니다. 백범 김구는 나라 전체 신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붙인 호입니다. 백범 김구는 자신을 깨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에 들어갑니다. 많은 어려움과 희생들 후에 백범은 정부의 대표가 됩니다. 백범은 많은 젊은이들을 이끌었는데, 특히 이봉창과 윤봉길이라는 애국지사를 역사에 남겨놓았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엄마도 잃고 고국에 돌아가 있는 두 아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봉길 사건 이후로 일본은 임시정부와 백범 김구를 찾기 위해 중국을 다 뒤지게 됩니다. 그래도 백범 김구는 실망하지 않고 군사학교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백성들은 두 계열로 나뉘게 되고 일본은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백범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명의 폭군으로부터 많은 폭군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일이며 백범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범이 계획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압정은 이제 끝나고 임시정부는 귀국하려 했지만 미국 계열과 소련 계열의 반대로 인하여 귀국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백범은 통일하고 싶어했지만, 미국과 소련은 따로따로 정부를 세웠습니다. 독립과 통합을 꿈꾸는 임시정부는 미군정과 소련의 계획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정이 임시정부의 귀국을 계속 미뤘습니다. 일흔이 넘어 백범 김구는 드디어 귀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보는 순간 백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어서 기뻐지만 나라가 갈라진 것이 백범 김구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재결합에 도전은 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하며, 다음 세대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학교를 몇 개씩 세웠습니다. 김일성과 이승만은 나라를 둘로 나누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때 백범 김구만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백범 김구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노력을 하였지만, 그가 꿈꾸던 아름다운 나라는 못 보고 난폭한 죽음을 당합니다.

거는 읽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펴올 때는 김구는 자기 나라를 더 발전시키며 권력을 얻으려하는 또 한 사람의 정치가로만 생각했습니다. 책을 끝마치게 되니 김구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되었습니다. 김구는 독립과 통일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지요. 가족은 가족을 배신하고, 형제는 형제를 죽이고, 친구는 친구와 싸웠습니다. 폭발처럼 터지는 전쟁은 진정을 마음을 깨뜨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제 가족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우리만의 역사가 있었지요. 저는 저의 큰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큰 할아버지는 6.25 전쟁 끝날 때 북으로 떠나셨습니다. 금방 오시겠다고 한 큰 할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가 북한에 있었을 때 줄은 그어지고 영원한 작별이 되었습니다. 큰 할아버지의 딸이신 저의 시카고 고모는, 남은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다가 어머니와 동생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고모는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사이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모에게만 흉터가 남은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아픈 상처로 남은 거지요. 김구를 반대하며 죽인 사람들은 분열만이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오랜 세월의 고통이 아름다운 나라

라 하면, 저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김구의 조그만 빛과 같은 꿈에 아름다운 나라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의 이름은 마음 좋은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는 이루지 못하였으나 마음 좋은 사람의 이름은 확실히 얻고 가셨습니다. 마음 좋은 사람으로, 큰 바위로, 백범으로 살다 가신 것입니다. 한 나라를 꿈꾸었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지키고자 했던 김구를 저는 보았고 우리도 이러한 꿈을 꾀야 통일의 날은 올 것입니다.



✦ 최우수상 광민지(동남부/애틀랜타 한국학교-7학년)

-한국을 사랑한 백범 김구

김구는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의 고정관념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면 잘 생기고 돈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을 생각했다. 예를 들면 인도의 간디나 영화배우나 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말이다. 백범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도 맞는 조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의 독후감 대회가 있을 정도로 역사에 기억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일 텐데 무엇이 백범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았다.

무엇보다 백범은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나라와 겨레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한 사람이었다.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 김구의 포기하지 않는 성품은 어렸을 때 무언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훔쳐서라도 가져야 하는 것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 손가락으로 엿을 사먹기도 하고 아버지가 숨겨놓은 돈을 훔쳐서 떡을 사먹기도 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으며 혼나기도 했지만 이런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 어른이 되어서는 김구의 소중한 성품이 되었다. 조금 더 커서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 또 나중에는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노력했다. 김구가 매번 고생만 하고 원하는대로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읽으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웠다. 특히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아쉬웠다. 그 때 김구는 낙양 군관학교라는 군대도 훈련시키고 있었고 임시정부도 벌써 세워 놓았었다. 그것은 마치 풋볼 선수가 터치다운을 하려는 찰나에 같은 팀 올스타 멤버에게 공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느껴졌다. 나도 김구 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을 귀찮게 해 혼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성품도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훌륭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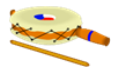
김구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와 겨레를 사랑했다. 큰 아들 인이가 아팠을 때 임시 정부 식구들을 생각하느라 페니실린을 사주지 못해서 결국 폐병으로 죽는 이야기를 읽었을 때 독립 운동가들을 친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후에는 단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다 결국은 죽음을 당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마도 나는 이봉창과 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아서인 것 같다. 이봉창은 일본인 흉내를 내고 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라 잃은 백성은 어디서든 똑같은 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나라가 얼마나 나를 보호해주고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태어난 미국과 우리 부모님께서 오신 한국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나라를 더 존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금 김구가 한국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아직도 38선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무척 슬퍼할 것 같다. 영화 “크로싱” 과 YouTube 에서 본 “굿바이 평양” 그리고 타임지에서 읽은 북한의 소식들을 보면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많고 정부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의 사회시간에서 다음 주 읽을 책 이름이 “Year of Impossible Goodbyes” 라는 책인데,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나에게 한국어 단어들과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을 도와달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북한도 곧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좋겠다. 김구도 기뻐할 것이다.

남한은 백범이 꿈꾸었던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적인 부분으로는 김연아 스케이트 선수가 있고 K-POP이 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에서 한국 사람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었다. 김구는 남한을 자랑스러워 할 것 같다.

기난 몇 주간 사회시간에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배워서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과 김구의 운동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인도의 간디는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했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호치민은 테러가 아닌 무력으로 싸워 독립을 찾았다. 아쉽게도 김구는 너무나 많은 고생과 희생을 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집에 미국인 친구가 놀러와도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준다. 김구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나라가 있지 않고 이봉창이 느꼈던 그런 아픔을 나도 느껴야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이 책을 통해 나라와 겨레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김구와 같은 마음이 훌륭한 사람을 알게 되어 기쁘다.



✦ 최우수상 윤도일 (동중부/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7학년)

-백범 할아버지께

백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베일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사는 윤도일이라고 해요. 이번에 미국에서 독후감 쓰기 대회를 계기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읽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대회를 참석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등상 상금 500달러가 탐나서 참가한 것이었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조금이나마 느껴지더라고요. 책이 아주 쉽지만 감동을 많이 주었고,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었다는 것도 알았고,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느낄 수 있었어요.

백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문화를 잇



어버리지 말고, 문화를 더욱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부분이기도 한 저희 코리안 아메리칸, 특히 2세대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해 저도 미국에 온지 자그마치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 한국말이 이제는 잘 마음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해요. 미국에서 쓰는 한국말이라곤 집에서, 그것도 부모님과 대화할 때만 영어와 같이 섞어서 써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4년 전까지만 해도 들리던 언어라곤 한국말 하나뿐이던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 때는 내가 이렇게 되리라는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창피하기도 해요. 엄마가 항상 한국말을 쓰라고,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하실 때마다 자신감 있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던 제가 너무 무책임했던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기도 했어요.

백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신 적도 있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왜 가장 낮은 문지기가 되고 싶어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항상 우리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맨날 집에서만큼은 한국말을 하라고 하는 엄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약간의 거부감마저 생기기도 하고, 왜 그렇게까지 엄격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완벽한 이곳의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제가 전에 살았던 곳에서는 친구들이 자꾸만 '칭크' 아니면 '아시안'이라고 놀려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고, 무언가 원망스럽고 알 수 없는 화가 쌓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책을 읽고 나니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버린 채소더미 속에서 괜찮은 것을 골라 먹으면서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에 비해서 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모래알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자신이 순간적으로 아주 작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백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지금 저 왜놈들은 이미 집어 삼킨 우리나라를 소화시키려고 밤을 새우는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나는 나라를 위해 밤을 새워 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책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가혹한 고문 때문에 분노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부끄러움 때문에 우셨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운 적은 수 없이 많지만 나라를 위해선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저 자신이 한심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도 어린 시절에는 저와 다를 바 없는 개구쟁이였다는 것, 때로는 아버지의 수저를 팔아 엿을 사먹었던 적도 있었고, 그로 인해 흠씬 매질까지 당한, 정말 영웅과는 먼 거리를 둔 어린 아이였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도 백범 할아버지 처럼 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백범 할아버지, 35년 동안의 세뇌 속에서도 할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을 바쳐 한 평생을 때로는 거지처럼, 때로는 배신을 당하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자기 혼자만의 이득이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과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지켜주신 문화라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할아버지를 더 닮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보았어요.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하겠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부모님이나 동생들과 계속 한국말로 대화를 해서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일기를 쓰면서 나의 언어로 백범 일지와 같은 의미있는 글을 남김으로써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한국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듣고 계시죠? 백범 할아버지, 감사해요!



-백범의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를 읽고

金九自叙傳
白凡遠志



나는 서울 광남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온 지 벌써 6년이나 지났다. 언제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한글과 한국문화를 많이 가르쳐주셨지만, 미국에서 한글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잘 몰랐다. 집에서 동생과 함께 놀 때에는 나도 모르게 영어를 많이 사용해서 부모님께서 무척 안타까워하셨고, 게다가 유치원 때 온 개구쟁이 어린 동생은 우리나라 말을 금방 잊어버려서 무척 힘들어 했으며, 때때로 한국 문화와 예절을 몰라서 꾸중도 많이 들었다.

오늘은 손꼽아 기다리던 신나는 크리스마스!

설록 홈즈 영화도 보고, 많은 선물도 받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늘 즐겁게 보는 만화를 동생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신나고 재미있게 보았다.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아버지(한글학교 선생님)께서 내 방으로 오셔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셨다. 내가 많이 생각하다가 “백 마리 호랑이를 때려 잡은 고구려

장군님?” 이라고 대답을 했다. 아버지께서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라는 제목의 책을 건네주시면서, “김구 선생의 의지와 희생 정신을 본받아, 우리나라 통일에도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내가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휴일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또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아! 그런데 갑작스런 고집 센 아버지의 요구는 나의 뜨거운 가슴에 미시간의 겨울 추위처럼 몰려와 나의 가슴을 눈처럼 차갑게 만들었고, 기분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꾸어 버렸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고전문학 책 등을 많이 읽어야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름도 모르는 한국 사람의 위인전을 읽어야 하는지 몰라서, 즐거운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무척 슬프고 우울했고, ‘백범 장군(?)’이 싫었다.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책을 읽는 도중, 나에게 화살같이 가슴에 꽂히는 문장이 나타났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차별없이 어울려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의대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김구 선생님의 원대한 꿈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무척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부끄러워졌다.

특히 김구 선생님이 동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에서 이름도 ‘창수’로 바꾸고 새로운 세상을 준비했지만, 동학군은 관군도 일본군도 아닌 같은 민족의 배신자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다. 결국 아름답게 꿈꾸던 일들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러나 고능선 선비님께서 하신 “실패를 겪었더라도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아닐 일이네, 끊임없이 다시 시도하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고민은 즐거움의 뿌리라네.”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과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았다. 김구 선생은 “실패와 좌절, 모험과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나라를 위해 걱정하며, 개인의 욕심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명성황후를 죽인 일본 강패 스치다를 죽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폭 넓게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나라를 구하는 길이 교육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호를 ‘백범’으로 지어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 스스로 깨어

나 낮은 곳에서 사는 것이 '마음 좋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김구 선생님께서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주국가를 세우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국가를 만들고자 하신 말씀과 정신은, 나에게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주었다.

지난 해 12월 22일 저녁, CNN 뉴스를 통해서 김정일 사망 소식을 들었다. 그 때 나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무척 무서웠고, 겁도 많이 났다. 아버지께서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변화하는 한국의 뉴스를 보고 계셨고, 이튿날 아침 나에게 "한국도 이제는 많이 성숙했구나! 한국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공부에 열중해라"라고 말씀 하셨다.

김구 선생님의 예언대로,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3년 동안 치렀다. 백범의 주장대로 통일정부를 수립했다면 흘리지 않다가도 될 피였다.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분단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번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백범의 거룩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 했다. 그리고 미국에는 북한에 고향을 두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계시고, 지금도 그 분들은 북한의 가족 친지 들을 많이 그리워하시고, 가끔 눈물도 흘리시는 모습을 옆에서 본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라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백범 선생님, 그 분은 조국을 자신의 목숨으로 여기고,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셨고, 한국 통일에 목숨을 바쳤다. 또한 한국 내에서 독립운동은 하 시고, 중국에서도 광복군 및 임시정부 주석으로 끊임없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진정한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열정으로 꾸준히 인내력있게 계속 시도하였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이 사회에서 받은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사람, 즉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비록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신나게 놀 수 없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김구 선생님의 나라사랑 정신과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배웠다. 남북이 대립하는 동안 북한 동포들이 병을 치료받을 환경은 가장 나쁜 상황으로 변해갔다.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북한 어린이들이 죽는 원인의 50%는 설사, 30%는 폐렴이라고 한다. 간단한 주사 한 방, 약 몇 알 이면 꺼져가는 어린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어른들도 역시 영양 부족으로 폐병, B형 간염, 기생 충 질병 등으로 죽어가고, 또한 노인들은 의료대상에서도 밀려나버렸다고 한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중요한 일에 도움을 주고 싶다. 아마 김구 선생님도 많이 좋아하시리라 생각한다.

꿈으로 백범의 몸은 영원히 잠들어도, 백범 선생님의 통일 정신과 나라와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발전되 고 이어지리라 확신한다. 김구 선생님의 꿈대로 하루 빨리 남북 통일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나에게 확고한 삶의 목적을 심어준 '김구재단과 '한국인의 얼과 나라 사랑, 통일의 필요성'을 심어준 한국학교 선 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소원한 독립, 성공한 독립

1949년 6월 26일. 우리 나라의 최고 영웅이었고 최고 독립유공자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을 우리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한 명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였으며, 그리고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저의 영웅이고, 제가 오늘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하느님이 김구선생님에게 소원을 세 개를 주셨다면, 김구 선생님은 똑같은 소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냥 독립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의 힘으로 얻은 독립입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반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긴 했는데, 우리 스스로 일본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긴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결과는 한국 사람끼리의 무의미한 전쟁이었습니다. 와~ 제가 운이 좋아서 하느님이 저에게 소원을 세 개나 주셨다면, 저는 슈퍼주니어만 원한다는 말만 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자신만을 위해 갖고 싶은 것이 아니고, 조국과 한국 사람들 모두의 이익을 원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용감하고, 마음이 착하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 중 제일 좋아하는 인용문은, "한국이 있고서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입니다. 이 인용문을 읽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김구 선생님 같은 독립 운동가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피를 가진 한국 사람인데,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고 내려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네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그것을 예견해서, 한국의 독립을 얻으려고 자신의 전부를 독립을 위한 노력과 집념에 쏟아 부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게다가 똑똑하고 지능형인 사람이었습니다. 적들이 김구를 찾아 다니고 있을 때마다 김구 선생님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정체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김구 선생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보다 자신이 하급하고 보통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이름 중에 '백범'이 그 뜻입니다. '백범'은 '백정'과 '범부'가 합쳐져 있는 이름입니다. '백정'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범부'는 평범한 보통 사람을 뜻합니다. 정말 겸손한 생각이네요. '백범'이라는 이름은 그 전 것보다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면 멋지고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구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폭탄을 도시락과 물병 모양으로 만들어서 일본 사람한테 던지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김구 선생님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김구선생님의 일생은 사자성어 '초지일관'의 정확한 예인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국의 독립을 찾겠다는 마음을 쪽 가졌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온 나라에 공개되어 퍼졌습니다. 김구선생님은 적들에게 목표가 되었고, 한국인들에겐 영웅이 되었

습니다. 적들에게 쫓기면서도 김구 선생님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할 때마다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죽는다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므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조상들이 살아온 나라에 대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무엇을 믿는데 동기부여가 없으면, 노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고, 실패, 아픔과 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이를 수 없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고 나서 세계가 달라 보였고, 제 조상들을 왜 존경해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께서 정말 고맙습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그 분의 정신은 우리 한국인들과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김구 선생님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분의 소원은 반만 이루어졌지만 그 분의 나머지 반의 소원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 분이 원하는 성공한 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 우수상 조태형 (워싱턴/열린문 한국학교-6학년)

-김구 선생님의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 를 읽고

김구는 어렸을 때 부터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김구는 마음이 좋은 사람은 바르고 참된 뜻을 세워야 하고, 판단, 실행, 계속이라는 세 단어에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김구 선생님이 마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김구 선생님이 좋은 몸과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김구 선생님은 자기가 세운 "좋은 마음을 가지는 방법들"을 완벽히 실천했으니까요.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 했을까요? 황해도 산골의 가난한 '상놈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김구는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드시 과거에 급제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상놈이라고 멸시받던 설움을 떨쳐내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상민을 위한 서당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구가 자기네 자식들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이웃들이 시기를 하여 서당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에 응시를 하려 했지만, 이미 망해가는 나라였던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와 뇌물이 판을 치고 돈과 권력으로 벼슬자리를 사고 파는 상황에서 정직하게 공부만 했던 김구는 낙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김구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관상 공부를 하던 차에, 하나의 글귀에 위안을 얻게 됩니다.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결국 어떻게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살아 갈 수 있을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분도 하찮고 관상도 볼품없는 김구로서는, 그나마 사람 노릇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김구 선생님이 한 선택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구 선생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급히 움직이지 않았고, 먼저 어느 선택이 더 나은 지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선택하였습니다. 김



구 선생님이 했던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죠. 모든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갈 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성급히 판단하기 보다는, 개인의 생활과 나라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여 결국은 임시정부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서 많은 고문을 당했지만, 개인의 희생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결코 일본이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김구 선생님은 쉬운 선택을 고르지 않았고, 힘이 들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제 김구선생님이 어떻게 실행했는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되찾는 꿈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청년들에게 일본에 대해서 가르쳤으며, 남북 연석회의 등 여러 장소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백범학원과 창암학원을 세워 교육사업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한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는 평생의 기간 동안, 심지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황해도 장련 광진학교에서 교사로 일 한 적도 있었고 그가 설립한 백범학원, 창암학원을 설립 뿐만 아니라, 직접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 또한, 엄청난 고통과 여러 위협이 있었지만, 김구선생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삶은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백범 김구 선생님을 쓰러뜨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배우지 못했지만, 평범을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였으며,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계례와 나라에 대한 사랑이 되었고, 두 차례의 옥살이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결코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대한의 후손들이 여전히 존경하는 계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숙제를 받았을 때는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하기 싫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미국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한국 책을 끝까지 읽는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저에게 이해하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김구 선생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구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을 끝까지 읽어 보니, 내가 잘 몰랐던 한국 독립에 대한 이야기와 김구 선생님의 삶에 대해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고, 얼마나 김구 선생님이 개인을 희생하면서, 한국독립을 위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실천을 계속했는 지에 대해 깊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김구 선생님이 현재 후손들에게 남겨주신 많은 교훈들과, 나라를 되찾는 데 희생하신 점 등 여러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끝까지 이 책을 읽어 보기를 권하였습니다.

김구 선생님이처럼 모든 부분에서 희생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계속 실천하는 일이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반성해 보면 아직은 이런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김구 선생님같이 큰 나라를 위한 일은 아니겠지만, 하루하루 생활에 있어서 이 책을 읽고 느꼈던 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 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필요하면 부모님의 의견이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를 바르게 판단하여, 조금은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실행하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노력함으로써, 좋은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꿈꾸는 우리나라 모습은 어느 나라에도 이룩한 적이 없는 '높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김구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정신 만큼은 잊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을 하신 김구 선생님과 여러 독립 운동가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



-역사를 만드는 길을 꿈꾸다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를 읽고 나서 저는 김구 선생님이 되는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처럼 하느님이 물었던 질문에 답해 보았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물으면, 저는 “제 소원은 해외 한국 청소년들이 한국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나?”하면, 저는 또 “그들이 올바른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나?”라는 셋째 번 물음에도, 저는 더욱 소리를 높여 “저의 소원은 우리 나라 역사를 배운 이들이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역사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역사를 알면 오늘과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보면 상황은 조금씩 틀리지만,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William Lund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study the

past to understand the present; we understand the present to guide the future.", "우리들은 현재를 이해하려고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이해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또,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지만 어제가 없으면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울분, 그리고 그 나라를 되찾으려고 끝없는 고생을 하면서 힘차게 뭉친 독립운동가들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더 깊이 있게,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역사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인식시켜 줍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수 많은 일, 수 많은 희생,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김구와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을 헛된 희생으로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계국주의가 팽배해 있을 때 김구는 태어났고, 일본의 침략과 함께 김구는 성장했습니다. 김구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빼앗긴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김구에게 죽음보다 더 독한 두려움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였습니다. 김구는 죽는 날까지 스스로 세운 이념들에 착실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미국이 투하한 핵폭탄 때문에 일본은 결국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은 독립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허무했습니다. 한국이 싸워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독립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결국엔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이 때, 만약 광복군이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했다면...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상황이 지금이랑 똑같을까?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구의 용기, 끈기,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꺾이지 않는 그의 대단한 의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원칙에 충실한 그의 능력은 저를 놀라게 합니다. 온 힘을 쏟았습니다. 초기에 김구는 경무국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시정부의 자금이 점점 없어지고,

앞길이 희미해졌을 때, 한 명 두 명, 많은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임시정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해외 동포들에게 수십 통의 편지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한 김구의 마음과 활동에 감동 받은 동포들이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었고, 중국과 미국은 결국엔 임시정부를 도와 다시 살리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버텨서 죽어가는 임시정부를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수십 번의 갈등이 있었을 법한데, 김구는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김구 아버지는 김구 대신 감옥살이를 했고, 결국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평생을 우리나라 땅이 아닌 중국 땅에서 살아서, 가족을 볼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가난에 붙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아들을 온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위로해주었던 어머니, 아무리 힘들어도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던 아내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폐병에 걸려 죽은 동료들, 그리고 독립의 길에 목숨을 내어 놓았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김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김구는 이 모든 것들과 뼈아픈 가족의 죽음을 뒤로하고 자주독립의 그날까지 달렸습니다. 저는 많이 창피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했습니다.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대부분 저를 위한 이기적인 목표였습니다. 한순간에 불타오르고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나의 의지.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왔습니다.

그는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뜻을 세우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사람. 실패해도, 가끔은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 강하게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구는 교육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죄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김구에게 고능선 스승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김구라는 스승님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 좋은 사람'으로 김구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머님께서 어릴 때부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쥘라. 지식은 나누어야 더 커지는 법이다." 또, 늘 마음만 앞서서 실수를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저에게 "남을 도와주고 싶으면, 먼저 너부터 바로 서, 너 자신의 능력을 키워라." 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불안합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구의 가르침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에 대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김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남겨준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지만 저는 불투명한 미래를 지금 설계합니다. 설계도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제 꿈을 향해 한 발 내 딛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환자를 찾아 나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 사회봉사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끔은 흔들릴 때도 있을꺼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김구가 그랬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의미있는 삶이고, 그런 삶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들과 어울려 저도 역사의 흔적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 장려상 이정민 (뉴잉글랜드/뉴잉글랜드 한국학교-9학년)

-공월에 꽃을 심는 자유

2012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나라가 되었고 어느 정도의 세계 강대국이 되어가면서 이 세상에 우뚝 서게 됐다. 이 세계에서 경제력이 상위 20 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 문화도 점차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되며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곳으로도 전파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107년 전, 을사조약이 맺어지면서 그 때 우리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는 독립된 나라로 성장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어려운 일이 우리나라에 닥쳐도 항상 우리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꿈꾸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다.

‘김구 -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에서는 김구 선생의 삶을 짚어가면서 김구 선생님께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된 우리나라를 위해 하신 모든 피눈물과 노력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 한 나라에게 올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1900년대 우리나라에 찾아온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무자비하게 우리나라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를 지우려고 했다. 1900년대 김구 선생님은 이런 슬픈 일들을 겪어가면서 인생 전부를 우리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바쳤다. 김구 선생님의 희생 정신과 나라에 대한 사랑과 눈물나는 고통들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김구 선생님의 삶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다. 한 때는 서울의 양반들이었던 김구 선생님의 집안 사람들은 반역죄로 인해 황해도 해주 텃골이라는 작은 동네로 피신을 했다. 작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김구는 말쑥꾸러기였다. 하지만 하루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양반들로부터 망신 당하는 일이 생기자 창암(어린 김구 선생님)은 화가 치밀어 올라왔고 그 이후 장난기를 버리기로 약속했고 과거에 급제하려 공부에 전념을 했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낙제했다. 낙제된 창암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는 곧 동학에 들어가 사회 평등과 외국 나라의 침범을 막기 위해 싸우지만 배신 당해 동학에서 뜻을 못 이루었다. 이러한 실패의 쓴 맛을 보게 된 창수가 고능선이란 선비를 만나 스승으로 모셨다. 고능선 선생님은 실패를 연달아 한 창수를 위해 시를 하나 적었다.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바람에 메달려 잡은 손을 놓을 수 있다면 대장부롭다.’ 즉, 중요한 결단의 시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이다. 그동안의 실패들은 김구 선생님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토록 힘든 시기에 김구 선생님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러한 모습을 본 나는 감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나라가 어지럽고 쉽게 절망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오히려 용기를 갖고 일본 군인들의 고문과 방해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나라에 이러한 위인이 안 계셨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존재를 할 수 있을런지 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보고 난 또 감탄을 했으나 감탄도 잠시, 나는 걱정이 됐다. 나는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과 달리 나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졌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싸우셨다. 하지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결국 나의 건강과 내 인생만

을 생각해온 것 같다. 또한, 실패 앞에 포기를 모르는 김구 선생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에 나는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았다. 정말 한 사람에게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 한 번의 실패 앞에서 나는 절망을 하고 폴 썩 주저앉으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지를 앓았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성공이고, 성공을 할 때에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김구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이라고 또 물으시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시면 그 때 또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는 또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독립된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김구 선생님은 나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고 우리나라와 앞으로 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셨다. 명성황후를 죽인 자를 복수하려고 쓰치다 일본 중위를 죽인 김구는 일본군들에게 잡혀 온갖 심문과 고문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김구 선생님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본 순사 와타나베를 꾸짖었다. 이것을 읽은 나는 깜짝 놀랐다. 자기 자신은 걱정을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 순사를 꾸짖은 모습을 통해 김구 선생님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돋보였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을 보면 김구 선생님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나는 새삼 다시 알게 됐다.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민족의 뿌리가 없어져 일본에게 지배받는 힘 없고 처량한 사람들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구 선생님은 분명히 살았던 삶 보다 덜 괴롭고 훨씬 더 편안하고 조용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왜 과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일부러 살아갔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라의 독립이 자기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쉽게 절망하고 일본인들에게 힘 없이 무릎을 꿇고 복종당하기 쉬웠지만 김구 선생님께서는 한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이 없어지면서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얼마나 비굴하고 억울한지 알고 계신 김구 선생님이 이 모든 업적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 나를 포함한 21세기의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잘 살까?' 같은 생각에 빠져 우리의 인생을 우리만을 위해 사는 듯 하다. 100년 전 김구 선생님이 가졌던 애국심과 나라에 대한 사랑은 지금은 많이 잊혀진 듯 하다. 부끄럽지만 나도 많이 잊어버렸다. 우리는 절대로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나는 결심을 했다.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김구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문화가 발전되고, 아름답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럴 뿐더러 우리나라는 다시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도 김구 선생님과 같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런 위험을 이겨낼 것인가?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한다.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다.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다." 우리나라의 자유는 힘들게 얻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대신해 얻은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갖고 산다. 하지만 이 자유를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지 잊으면 안된다. 자유가 주어진다. 우리는 더욱 더 나라를 사랑하고 부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나의 바램이다. 부디 우리의 자유를 잊지 말고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가 됐으면 한다.



✦ 장려상 김소진 (동중부/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8학년)

-내 마음의 천사 백범 김구



내가 가끔 듣고 생각하는 말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다. 한국인의 영웅, 백범 김구는 그의 삶을 통해 이 말을 실천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백범이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의 내용에 빠져들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백범처럼 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오히려 '내가 백범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엉뚱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즉, 아주 평범한 나와 비교할 때, 백범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백범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천사'였다 라고 까지 생각되었다. 백범 김구, 한국 독립 운동의 지도자는 자기가 살던 때 한국인의 힘든 삶에 빛을 비추어 주었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일본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우리 나라의 자람이며 꿈이다.

어렸을 때 백범은 아버지의 새 손가락을 엮으로 바꿔 먹고, 떡을 사 먹으려고 아버지의 돈을 훔친 철없는 아이였다. 가난한 상민으로 살아가던 그는 양반들의 못된 행동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공부를 해서 과거시험을 통해 양반이 되려 하지만 돈으로 합격을 사는 세상임을 알고 시험을 포기한다. 대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관상공부를 하여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은 한 군데도 좋은 곳이 없어 보여 슬퍼하던 중에, 책에서 읽었던 글,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며 평생을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 가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 궁금하기만 했다. 이때 '사람 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동학 사상에 빠져서 양반들의 못된 행동이 없는 새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결심을 한다. 그러나 배신자에 의해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이때 쯤, 백범은 그의 삶을 가장 위대한 삶으로 바꾼 스승을 만났는데 그 분이 바로 고 능선이였다. 그 스승을 통해 백범은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다. '마음 좋은 사람은 옳은 뜻을 가져야 하고, 뜻을 가지면 당연히 행동해야 하고 이런 행동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마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스승은 그에게 중국으로 가서 넓은 세상을 공부하고 중국과 힘을 합해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아 볼 것을 요구한다. 아직 어린 김구는 '자신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하고 두려운 마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중국으로 떠날 결심을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명성황후가 일본의 깡패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나라의 원수를 갚으려고 만주 지역 의병이 되었지만 실패하고 만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가장한 일본사람을 보게 되어 나라의 창피함을 씻으려고 그를 죽인다. 그 다음 고향에 돌아와 자신이 한 일을 떳떳이 부모에게 말하고 숨지도 않고 살아간다. 세 달 후 감옥에 가게 되지만 힘든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당당했다. 백범은 감옥에서도 세상을 보는 넓은 눈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읽었다. 그는 또한 글을 모르는 죄수들에게 열심히 글을 가르쳤다. 다행히 죽게 되진 않았지만 그의 감옥생활은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백범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 감옥을 몰래 빠져 나올 계획을 하고 이를 해낸다.

백범을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언제나 믿어주고, 힘과 용기를 준 사람은 바로 그의 부모님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보러 와 그 어떤 높은 사람이 된 것보다 기쁘다고 칭찬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독립 운동을 할 때 사람들이 그녀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려 하자 그 돈으로 대신 총을 사서 독립운동에 사용해 달라고 할 정도로 그의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다.

백범은 독립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도 참았다. 그의 삶은 실패와 아픔이 계속 되었지만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고 중국에서 임시로 정부를 만들었다. 이때 젊은 두 영웅 '이봉창'과 '윤봉길'이 찾아와 그를 도왔다. 그들은 백범이 우리나라를 독립으로 이끌 가장 좋은 지도자라고 믿었기에,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비록 두 사람 모두 일본 천황을 죽이는데 실패는 했지만 그들의 희생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한국이 얼마나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지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백범은 또한 광복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으려는 희망을 가졌는데 몇 년 동안 준비한 계획을 써보기도 전에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얻은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 해방은 백범에게 또 다른 걱정이 되었다. 이미 나라 안은 미국 군인들이 세운 정부가 있어서 임시정부는 정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백범은 미국이나 소련이 대신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도 해 본 적이 없고, 남과 북으로 나뉘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적이 되어 싸우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백범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합을 주장하였다. 73세의 나이인데도 통일된 나라를 만드려고 북으로 가서 함께 대화하려 했다. 이런 노력을 했어도, 미국은 이승만을 앞세우고 소련은 김일성을 앞세워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었다.

백범은 어느 날 오후, 안두희 라는 친일파이며 통일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 살해되어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떠난 다음 해에 백범의 걱정대로 우리나라는 6.25라는 우리끼리 적이 되어 전쟁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다. 현재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 우리나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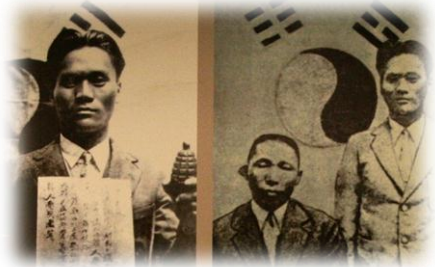
백범 김구, 그는 분명히 마음 좋은 훌륭한 한국의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다. 그에게 나라는 전부였고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항상 그의 생명을 다하여 싸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백범은 자신이나 자신에게 속한 것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선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주사가 있었는데 주사가 모자라 같은 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야 된다고 아들에게 주사를 주지 않았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는 지도자로서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라의 아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켰다. '나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책을 몇 번 읽으면서, 나는 백범 김구가 나라를 위한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고 또 놀랐다.

또한 백범 김구는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마음을 다하여 용기있게 행동하였다. 명성황후의 죽음에 나라의 창피를 씻으려고 일본인을 죽였을 때, 자신의 이름과 사는 곳을 써놓고 자리를 떠났으며, 이봉창, 윤봉길과 함께 일본 천황을 죽이려 한 뒤 일본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자신이 한 일이라고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좋은 마음으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그의 삶은 고통과 슬픔, 어려움만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가져오게 했고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좋은 우리나라를 꿈꾸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이런 지도자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한국은 어떠했을까? 이 순간 나는 그를 향해 고개가 숙여진다.

백범 김구의 꿈은 아직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백범 김구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우리의 가슴에, 지금 내 마음에도 꿈꾸게 하는 것을 느낀다. 우리에게 한 위인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꿈이 이루어 질 때까지 우리 세대, 아니 다음 세대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백범 김구가 바라던 통일을 희망하며 언제, 어디서나-나처럼 미국에 살지라도 한국인으로서 태어났으면- 우리 모두가 통일의 꿈을 꾸며 하루하루 성실히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천사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 장려상 고채린 (북가주/뉴라이프 한국학교-6학년)

-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 를 읽고

책을 펼치기 전에 본 김구라는 할아버지의 표지 얼굴은 편안했다. 사진 속의 웃고 있는 모습은 좋은 교장 선생님같기도 하고 유모차 끄는 동네 할아버지처럼 자상해 보였다. 하지만 책을 다 읽은 후 이 분이 그 힘든 고통을 다 이기신 분이라는 것이 믿기 힘들었다. 책을 읽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한 사람과 한 국가에 일어나서 마치 200년 정도의 역사를 읽은 것 같았다. 그리고 위인전 제목에서 많이 보이던 이름들도 곳곳에서 나왔다.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등... 나는 글을 읽다가 백범 김구의 책인데 글쓴이가 청년 백범이길래 본인이 직접 쓴 자서전인가 헛갈렸다. 찾아보니 청년 백범은 '백범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청년이 되자' 라는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연구모임 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범 김구를 '멘토'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백범 김 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 창암에서 창수로 그리고 김 구로... 옛날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호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백범' 나는 당연히 하얀 호랑이란 뜻일 것이려니 했다. 어머니께 여쭙봐도 같은 대답이셨다. "하얀 호랑이란 뜻일 거야." 나라를 구하기 위해 힘 쓴 위인에게 걸맞는 호 같아 보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당시 가장 천대받던 백정(白丁)과 범부(凡夫)에서 따온 것이라고 씩어 있었다.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국이 되려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모두 깨어나 김구와 같은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했다. 스스로 낮은 사람이기를 원했던 위대하고 높은 사람! 하긴 그 당시 그가 높은 사람이기를 스스로 원하고 편한 자리를 원했다면 친일파가 되고 말았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나라를 되찾은 후 김구가 조직했던 '반민특위' 같은 조직이 성공적으로 뜻을 이루었다면 지금의 정신대 할머니들께서 늙으신 몸을 이끌고 시위하는 슬픈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왜 바른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하다. 내가 이 책을 읽는 내내 든 생각은 '불쌍한 대한민국' 이다. 주변의 큰 나라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았을까?' 분한 생각도 들고, 왜 자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남의 나라까지 욕심을 내는 것인지 참 답답했다.

백범 김구가 훌륭한 인생을 살기까지는 주위에 그만큼 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다. 나는 첫째로 가족을 꼽고 싶다. 나는 김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머니가 면회를 간 상상을 해보았다. 아들이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당당하게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셨던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께서 통곡을 하며 고생스러우니 모든 것을 그만 두라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임시정부도 못 만들고 광복을 위한 노력도 늦어졌을 것이다. 그런 힘든 길을 선택한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들들이 있어 이룰 수 있었던 업적일 것이다. 김구에게는 훌륭한 스승님도 계셨다. '고능선'. 나와 같은 '고'씨이고 우리 할아버지와 이름이 비슷해서 괜히 으쓱해진다. 그 선생

님께서 '판단, 실행, 계속' 이 세 단계를 성공의 단계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어린 김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제자로서 사랑하시고 큰 꿈을 키워주셨다.

나는 책을 읽으며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던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 김구가 자신이 '김창수' 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그 사실이 발각될까 걱정이었고 또 하나는 할 일이 앞으로도 많고 아직 나라를 되찾지도 못했는데 감옥에서 15년을 갇혀 있으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운이 좋아 그는 5년을 살고 나왔고 그 때 나이가 마흔이었다. 우리나라를 위해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책을 계속 읽어가며 이 책의 결말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에게서 독립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구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마무리되고 국민의 칭송을 받으며 생을 마감하려니 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우리의 독립군이 완전히 준비되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국이 되는 시나리오여야 맞는데 말이다. 나는 신탁통치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면 그것도 또 다른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일본은 물러가고 나라를 되찾았지만 스스로 우뚝 선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작은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진 그 때가 무척 아쉽고 안타까운 역사의 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대륙에는 저렇게 큰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바다 건너에도 막강한 일본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쪼개지기까지 해서 더 작아져야만 했는지... 대한민국의 지도를 그릴 때도 우리는 남한만 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책에도 나와 있듯이 호랑이가 으르렁대는 그림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땅의 면적에 비해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하루 속히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수한 우리 민족의 힘이 두 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그 것이 돌아가신 김구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미래일 것이다. 우리 민족은 교육도 열심히 하고 저력이 있으니 그 때 다른 강대국의 도움이 없이도 결국 잘 일어섰을 것이다. 김구가 그 때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그렇게 한 민족이 갈라지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가 보다. 오랜 고문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생각했던 김구, 나는 김구가 저격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느꼈을 슬픔이 이해가 간다. 그것도 평생 그를 괴롭힌 일본인이 아닌 같은 국민의 손에 의해 돌아가시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책에 보면 그에게 총을 쏘 안두희 라는 사람은 1949년에 일을 저지르고도 1996년까지 편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정말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일본에게 오히려 잘 보이려고 같은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고 그의 후손까지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며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다. 그러한 역사는 바르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앞잡아 보는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때 나라가 분단이 된 후 다행히 남한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북한은 어떤가? 그 때의 잘못된 역사가 수 십 년을 계속 고통받게 하고 있다. 같이 잘 사는 자유로운 민주국가가 되었더라면 '탈북자' 들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만약 상황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처럼 독재국가가 되었더라면 어쩔 뻔 했을까? 끔찍하다. 이래도 저래도 분단국가라는 것은 참 슬픈 현실이다.

김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친 위인들- 안중근 의사, 이봉창의사, 윤봉길 의사 그리고 백범 김구- 이런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 같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IT산업도 우수하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예술, 스포츠, 학문 모두 뛰어난 국가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의 이러한 위인들에 대한 자긍심으로 계속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김구의 바른 판단, 두려움을 모르는 실행,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는 정신이 우리가 앞으로도 이어나가야 할 민족의 정신일 것이다.



✚ 장려상 이재현 (뉴잉글랜드/뉴잉글랜드 한국학교-7학년)



-세상을 바꾸는 문지기

겨울 방학이 시작되던 날 한국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받았다. 아무 생각없이 받아 든 책의 표지에는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제목을 보자 2년 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독립 기념관에 서 보았던 태극기 발, 안중근 의사가 남긴 손도장, 임시 정부 요인들의 모형 등이 내 머리 속에 떠올랐다. 선생님께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방학 내내 나는 이 책을 한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 그러다 개학이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책을 집어 든 나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려던 그 당시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동학 운동, 교육 사업 등에 참여하였다. 국내에서 가해지는 일본의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간 그는 가장 낮은 사람으로 임시 정부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안창호 선생의 간곡한 설득으로 결국 경무국장이 되어 젊은 애국지사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일본의 패망 후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자 김구 선생님은 대통합을 주장하고 남과 북을 오가면서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김구 선생님은 아주 멋진 애국지사이다. 그는 자기 삶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쓴 "나의 소원" 이란 글은 그가 얼마나 절실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지를 보여 준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일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중에 김구 선생님이 특별히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임시정부에 스스로 문지기로 참여하고자 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했지만 선생님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온 몸을 바쳐, 심지어는 온 가족을 희생해가며 일했다. 그의 겸손한 마음과 나라에 대한 열정이 나에게 색다르게 느껴졌다.

솔직히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많이 알지도 못했고 별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책을 읽던 중 한국의 어려웠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남북의 분단,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전에는 한국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 그저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소식들이 나에게 더 가까운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세계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횡포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모든 나라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책임감 있고 공평하게 국제 사회에 이바지한다면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주장한 대한의 독립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무저항과 비폭력 운동을 펼친 간디나 인권과 평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마틴 루터 킹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했으리라.

선견지명을 가졌던 김구 선생님의 뜻대로 그 때 대통합이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을 받는 가족들도 없을 것이고 또 한국은 통일된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더 큰 영향력으로 이바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남북 통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들에게 남북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수 있겠다. 그렇게 하면 내 주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많

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고 그들이 남북 통일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서울방학 내내 방 한 구석에 놓여 있던 작은 책 한 권이 나의 사고와 시각을 넓혀 놓았다. 이 책을 통해서 전에는 생소하게만 들리던 통일, 인간의 권리, 세계 평화 등과 같은 말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게을러지거나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온갖 어려움을 겸손과 열정으로 이겨낸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며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장려상 권소연 (서북미/워싱턴 통합한국학교 시애틀 캠퍼스-9학년)



-우리가 꿈꾸는 나라

3.1절이라는 국경일이 있다고 한다. 나는 봄이 오는 것을 축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꽤 낭만적인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서 벗어나길 바라며 '만세'를 외쳤던 날이라고 한다. 일본 경찰은 만세를 외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했다. 우리도 잘 아는 유관순 언니도 열 여섯 밖에 안된 나이에 만세를 부르고 일본 경찰에게 잡혀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라'를 위해 고통을 참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 읽은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 (청년 백범 지음/한겨레아이들)의 백범 김구 선생님도 바로 그 시기에 일본에 맞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지도자였다.

김구 선생님이 살았던 때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 조선 왕조는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차별 받았다. 거기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며 사람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김구 선생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직접 온몸으로 겪었다.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제도 때문에 차별 받았고, 아버지의 병 때문에 지독한 가난을 겪었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자신을 차별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기 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을 했고,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돈이나 권력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것을 보고 시험을 포기하고 말았다. 김구 선생님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개인적인 복수로 해결하지 않고 자신과 똑 같은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더 큰 일을 하려 했다.

우리나라의 힘을 모을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을 만나 일본을 공격했다. 이것은 비록 작은 공격이었지만 일본에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얼마나 바라는지, 우리 민족의 의지와 용기를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바라보느라 자기 개인의 편안함과 행복은 모두 포기했다.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의 대표인 국무령이 되었을 때, 임시정부는 이미 위험하고 힘든 생활에 지친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질 때였다. 김구 선생님 역시 어린 아들 둘에게 제대로 밥을 먹일 수도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임시정부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김구 선생님은 두 아들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고 당장 한 끼 밥도 중요하지만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김구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으면서도 후세, 바로 우리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 더 감명 깊었던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도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사용하고 군대를 만들었지만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앞장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 김구 선생님은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생각한 것이다. 제국처럼 '아름다운 나라'를 꿈꾼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는 마지막 부분은 정말 안타까웠다. 만약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고,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니, 김구 선생님의 죽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3.1절에 대해 잘 모른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그 시절 우리처럼 평화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3월 1일 하루만이라도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김구 선생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